정암사 산문 열린 날, '문화'로 장엄하다

8월 2~4일 '2024 개산문화제'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념 의미
자장율사 열반지 적조암 조명
8월3일 개산재…정념스님 법문
무용 공연, 산사음악회 등 다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백산 적멸보궁 정암사의 수마노탑. 2020년 국보로 승격됐다. 정암사는 국보 승격을 기념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개산문화제를 8월 2~4일 개최한다.

태백산 적멸보궁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 스님)가 개산(開山)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다.

정선 정암사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정암사 경내 일원 등에서 '2024 정선 정암사 개산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정선 정암사는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경내에 '국보 수마노탑'과 '천연기념물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가 소재한 한국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이다. 이번 정암사 개산문화제는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기념해 시작한 행사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올해 정암사 개산문화제는 자장 율사의 열반지인 적조암에서 시작한다. 8월 2일 오후 1시 적조암에서 진행되는 '정암사 문화유산 발굴 프로젝트-적조암, 옛 선인을 만나다'는 〈삼국유사〉 '자장정률' 스토리를 한국 1인극의 대가 유진규와 시소리로 일가를 이룬 김평부가 무아·공의 의미로 해석한 퍼포먼스와 해금연주자 강은일의 즉흥 연주로 구성된다. 적조암에서 머물며 교단을 정비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을 조명하는 인문학교육연구소의 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진다.

창건 1379주년을 기념하는 개산재는 8월 3일 오전 10시 정선 정암사 경내 특별무대에서 봉행된다. 개산재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전통 작법 이수자 스님들이 집전하는 진영 이운, 신중작법 등이 설행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법문도 설할 예정이다.

8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함백산 위령재-하늘 길을 걷다'가 진행된다. 위령재는 전몰장병과 지역 석탄산업 희생자, 강원랜드 등 지역 발전의 이면에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해원과 상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지역을 기반한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8월 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함백산 풍류, 말과 멋'은 정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타계한 강기희 시인을 추모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날 문학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강기희 시인의 시와 산문을 낭독하고 이원규, 박남준, 신승근 등 초청시인의 자작 시 발표 등으로 꾸며진다.

8월 3일 오후 5시에는 불교 가르침의 핵심주제인 마음을 도상화한 '심우도'를 현대의 몸짓과 소리로 해석한 현대무용 퍼포먼스 '심우도_마음을 찾아서'가 정암사 적멸궁 앞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각광을 받았던 다수의 젊은 무용가들이 한층 성숙한 기량으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4일 오전 11시에는 정선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강릉시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함백산 다양성의 날' 행사가, 오후 1시에는 정암사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가 펼쳐진다. 올해 산사음악회는 핑거스타일 클래식 기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장하은과 리베, 한국 대표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가 이끄는 밴드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정암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위엄을 기리고 지역 상생을 발원하기 위해 개산문화제를 봉행한다"면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주민들과 함께한 행사를 마련했다. 치유와 화합을 위한 정암사 개산문화제에 수희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문의 010-6361-2648

금산사, 월주 대종사 3주기 추모 다례재

7월 18일 처영문화기념관서
화평스님 주지 취임 고불식도



조계종 제17·2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삶을 실천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기리는 추모 법석이 마련됐다.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7월 18일 경내 처영문화기념관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추모사를 통해 "월주 대종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사바세계는 분열, 갈등, 탐욕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월주 대종사여, 다시 한번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 제도 해달라"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한국불교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오늘날 한국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원력 보살행을 하셨다"고 회고했다.

태공당 문도 대표 도영 스님은 "은사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셨다"며 "세계명상평화센터 등 스님의 생전 유지를 이어받아 후학들이 스님의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의 취임 고불법회도 봉행됐다. 이날 화평 스님은 "금산사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와 지구촌에 보현행원의 가르침을 전하신 월주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며 "사부대중과 소통·화합하면서 금산사와 전북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막중한 금산사 주지 소임을 흔쾌히 맡아준 화평 스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자. 모두가 길을 찾지 못할 때 금산사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 후원

점심식사 · 문화공연 · 경품 제공



진안 쌍봉사가 진안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경로문화행사를 후원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7월 12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시관에서 열린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에서 장기 자랑 경품과 사은품,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도 진안군 지체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시각장애인 점심 배식 봉사와 도우미 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행사에 참석한 12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진안군과 쌍봉사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장기 자랑, 초청 가수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보경 스님과 섬김봉사단은 행사를 마친 후 진안읍 대광1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 복날 식사를 위해 쌀 100kg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30돌 문사수법회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

문사수법회, 개원 30주년 기념법회 봉행

7월 14일 담양 정토사서
30년 포교 여정 회고해


문사수법회는 7월 14일 전남 담양 정토사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문사수(聞思修)법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경전 공부로 불교 수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문사수법회(여여 대표법사)가 7월 14일 전남 담양 정토사(주지 혜광 스님)에서 30년 포교 여정을 회고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문사수법회는 한탑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고 1988년 경전 법회로 시작한 신행공동체이다. 36년 법회운동과 30년 대중법회를 매주 일요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7곳에 지역 법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서출판, 방송미디어, 공연예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여여 대표법사와 정신, 명성, 범활, 범열 등 법사단을 포함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정평사 주지 정우 스님, 이순규 전 광주불교교육원장,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이학송 동국대 불교동문회장도 함께해 축하를 전했다.

경주 정평사 주지 정우 스님은 "'불속이라도 뚫고 기어코 법문을 듣겠다'는 문사수법회 개원 30주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법우들이 혼탁한 중생 세상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여여 법사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은 경전에 달렸다. 내 생명의 근원인 참생명 부처님을 30년간 모시고 살았다"며 "끊임없이 나의 생명 근원을 잊지 말고, 경전에 새겨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신앙하면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마련한 행사도 진행됐다. 대중법회를 이끈 법사단 소개와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의 기록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상영됐다. 이어 관음무(청심행), 노래(동조), 합창(밝은마음합창단) 공연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불교대학, 신도기본교육 수료·수계식

밀양 여중생 사건 참회도
100일 동안 참회기도 진행



밀양불교대학이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수료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밀양 불교계는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참회해 눈길을 끌었다.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 스님)은 7월 15일 밀양 용궁사에서 '제19기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수료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료식에는 신도교육과정을 이수한 백종인 학생회장을 비롯한 수료자들에게 수료증과 '행도' 품계증이 수여됐다. 행도 품계는 12주의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는 조계종 신도 품계이다. 이어 봉행된 수계법회는 통도사 율주 덕문스님을 계사로 수료자들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했다.

밀양불교연합회회장 진각 스님은 "여러분들은 조계종의 수행 지침인 참선, 염불, 간경, 사경, 절 수행, 주력 6가지 수행을 열심히 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학장 정무 스님은 "기본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늘 신심과 원력을 세워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참회하는 발원문을 봉독했다. 육체적, 정신적 속박을 감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고통받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로 조속히 치유되길 발원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100일 간 시민법회를 열어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참회를 기원한다. 해당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밀양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갑사, 전통산사문화유산 인문학 강좌 개강

7월 13일, 경내 진해당서
총 4회에 걸쳐 무료 진행



조계종 제6교구 갑사(주지 탄공 스님)가 경내 진해당에서 전통산사문화유산 인문학 강좌를 개강했다.〈사진〉

강좌는 '2024년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7월 13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갑사 문화유산과 인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유근자 국립 순천대 연구교수는 7월 13일 '지장·명부신앙 그리고 우란분재와 미술'을 주제로 첫 강의 나섰다. 강의에 참여한 20명의 수강생은 평소 지장전과 명부전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했다. 대전에서 온 한 익명의 수강생은 "지장전, 명부전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무척 궁금했다. 이번 강의로 많은 부분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만족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향후 강좌는 △7월 20일, 박범준 YTN 라디오 PD(신문방송 전공)의 '의승과 문화콘텐츠' △7월 27일, 박병기 한국교원대교수 (윤리교육 전공)의 '한국사회와 공주 정신' △8월 3일, 이성수 동국대 국문과 겸임교수 (고전문학 전공)의 '고전문학에 나타난 영규대사' 순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갑사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불자들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붓다봉사단, "건강한 여름 나세요"

영양탕 300인분 나눔



(사)붓다봉사단과 아중요양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탕을 대접했다.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7월 17일 전주 붓다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여름 대표 보양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붓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은 이틀간 장을 보고 직접 재료를 준비해, 300인분의 영양탕을 마련했다.〈사진〉

이날 아중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혈압, 당뇨검사 등 건강검진과 건강상담도 진행했다. 현진 스님, 가수 김민정, 색소폰 연주자 박보성 등이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재현 붓다봉사단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양탕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수붓다회 출범…"대학생 전법에 최선"

회장에 김순남 신한대 교수



불자 교수 신행단체 '교수붓다회'가 출범식을 갖고,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와 한국불교 중흥에 의지를 다졌다.

김순남 신한대 교수 등 불자 교수들은 7월 18일 서울 봉은사 교육관에서 '교수붓다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 교수붓다회는 김순남 신한대 교수가 회장을 맡았으며, 11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향후 교수붓다회는 학습위원회, 수행위원회, 성지순례위원회, 전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모임에서 불자 교수들은 미래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와 한국불교의 내일을 위해 발전적 지혜를 모은다.

김순남 교수붓다회장 "교수붓다회의 활동이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단의 동기부여가 되고 전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